DOI: https://doi.org/10.28977/jbtr.2012.12.31s.68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경 번역에 대한 제안

강사문*

1. 시작하는 말

대한성서공회에서 위탁된 '차세대 우리말 성경 번역을 위한 제안'이란 제목을 받고 평소 우리말 성경 번역에 대해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 세 가지를 제안하려고 한다. 한 세대마다 성경이 새롭게 번역되어야만 새로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가정 예배 때 성경을 읽으나 이해할 수 없다는 어린이들이나 젊은이들의 볼멘소리를 들으면서, 성경 번역은 한 세대마다 번역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특히 절실히 느낀다.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이 글을 시작하려고 한다.

우선 새로운 성경 번역을 위한 제안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번역된 공인역(公認譯)을 중심으로, 그 역본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각 역본들의 장점들은 계승하되 단점들, 즉 오역이나 수정할 점들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면 관계로 공인역본들을 역본 순서에 따라 간명하게 약술하려고 한다.

2. 지금까지의 공인역들

2.1.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56)

최초의 신구약 한글 완역본(1911)인 『셩경젼셔』(구약 2권, 신약 1권)[1]를 계속하여 수정 보완한 다음 거기에 기초하여 다시 수정되고 개역된 『셩경개역』(1938)을 해방 후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따라 다시 수정하여 개신교용으로 정착되어 사용되고 있는 역본이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56)이다.[2] 『개역

* 서울장신대학교 석좌교수, 구약학.

1) "하느님이 우리말을 하시다", 「성서와 함께」 129 (1986/12), 74.

2)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서울: 기독교문사, 1990), 38-54;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6), 181-188.

한글판』은 한국교회를 위해 지금까지 널리 사용된 유일한 역본이지만 백 년 전의 한자어식 용어들이 많아 오늘의 젊은이들이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 성경이 직역에 충실한 훌륭한 역본이라 할 수 있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잘 쓰이지 않은 용어가 많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십여 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을 상대로 『개역한글판』에서 모르는 단어를 조사한 결과 약 800여 개가 집계되었다. 따라서 대학생 수준에서도 『개역한글판』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성경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이런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역한글판』에 대해 개정 작업을 시작하여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을 출판하게 됨으로써 젊은이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2.2. 『공동번역 성서』(1977)

『개역한글판』의 난해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977년 신구교(新舊敎) 공동으로 『공동번역 성서』를 출판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였고, 『공동번역 개정판』(1999)도 나왔으나 이 번역 역시 혼선을 주거나 미비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동번역』은 신구교가 합동으로 번역한 역본인데 이 번역본에서는 『개역한글판』에서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대신에 '야훼'를 사용한 것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이 번역의 사용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가톨릭교회 역시 지금까지 사용하였던 하나님의 호칭 천주님 대신에 '야훼'를 사용하였지만 천주교회는 『공동번역』을 수용하였다. 이 『공동번역』의 특징은 지금까지의 문자역이나 형식일치의 번역을 지양하고 '내용 동등성(Dynamic Equivalence)'의 원칙에 따라 번역을 시도한 것이다. 번역이란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파악된 본문의 뜻을 같은 뜻의 우리말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뜻을 표현하려고 하지만 획일적인 하나의 뜻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의역(意譯)의 맹점이다. 번역은 일종의 해석인데 해석의 다양성을 표현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어떤 말이나 어휘를 다른 언어로 옮길 때에는 어휘의 기능 범주를 다 옮길 수 없고, 그 중에 하나의 의미만 옮길 수밖에 없으므로 번역의 단조로움을 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도서 11:1의 번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개역한글판』(1956)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공동번역』(1977)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되어 돌아 올 것이다.
『표준새번역』(1993)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개역개정판』(1998)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바른성경』(2009)
너는 네 양식을 물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뒤에 네가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위의 다섯 개의 번역을 대조하여 보면 '라흐메(לחם)'라는 단어를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은 경제적 관점에서 돈으로, 『개역한글판』, 『개역개정판』과 『바른성경』은 식물, 떡, 양식으로 옮긴다. 전자의 경우는 '돈이 있으면 사업이나 무역에 투자하면 후에 이윤을 갖게 될 것이다' 하여 의미를 따라 번역했고, 후자의 경우는 '음식이나 떡을 물 위에 던지면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하여 문자대로 옮긴다. '라흐메'는 사전적 의미로는 '음식'이나 '빵'에 해당된다. '빵'을 물 위에 던지면 나중에 도로 찾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의역을 하지만,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

2.3. 『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

『공동번역 성서』 다음 번역판으로는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이 1993년에 나온다. 『개역한글판』은 20-30대 젊은이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공동번역』은 직역이 아니라 본문과 너무 거리가 있고 천주교식이고 일방적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이 출간되었으니, 그 대상은 20-30대 사람으로 우리말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현대어로 번역되었다. 본문의 뜻에 따라 우리말 수용언어로 표현하여 '원문과 번역문을 읽는 독자의 이해가 같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번역에서 하나님의 이름 יהוה를 '여호와'도 아니고 '야훼'도 아닌 '주님'으로 한 것은 위와 같은 이치에서이다. 이 역본의 특징은 한 가지로 말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표준새번역』은 『개역한글판』과 『공동번역』의 문제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두 역본의 전승을 혼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역한글판』의 직역 전승을 따르는 한편, 『공동번역』의 내용 동등성의 의역을 따르기 때문에 양 역본의 흔적이 다 나타난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하반절에 『개역한글판』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로 옮긴 것을 『표준새번역』은 '신'을 '영'으로 바꾸고 나머지 한문체는 『공동번역』처럼 우리말로 풀어 쓴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2.4. 『개역개정판』(1998)

『개역한글판』의 난해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개역개정판』인데 여기에도 여러 오역이나 혼란을 주는 흔적들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1) 출애굽기 19:1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시내 산에 도착한 때가 '삼 개월이 되던 날'이 아니라 세 번째 달이란 뜻에서, 개정 전의 『개역한글판』처럼 '제 삼월 곧 그 때'가 되어야 한다. 이 『개역개정판』의 오역 때문에 오순절이 언제인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2) 출애굽기 26장에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1절에서 13절까지의 '에리오트(יריעות)'가 '휘장'으로 번역되었고, 31-35절에 나타나는 '파로케트(פרוכת)'도 '휘장'으로 번역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37절에 나타나는 '마싸크(מסך)'도 '휘장'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다른 세 용어가 우리말로는 모두 같은 '휘장'으로 번역되었으니, 각기 다른 용어에 대해 똑같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주고 있다. 오히려 『개역한글판』에서 이 세 다른 용어를 구별해 '폭'(1절), '장'(31절), '문장'(37절)으로 번역한 것이 혼란을 덜 준다. 성막 문의 '휘장'과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용어가 다르므로 번역 용어도 구별되어야 한다. 또 레위기 5:6에서 『개역한글판』의 '속건제(아셈)'를, 『개역개정』은 "히, 벌금"이라고 주(註)를 달았지만, '속죄제(핫타트)'로 번역하여 혼란을 주고 있다.

한편 『개역개정판』도 『개역한글판』의 혼선을 그대로 답습하기도 한다.

1) 민수기 33:11과 33:36에는 시내 산에 도착하기 전에 있는 광야도 '신 광야'요 시내 광야를 지나서 있는 광야도 '신 광야'로 표기되기 때문에 독자는 같은 장소로 혼동하게 된다. 두 '신 광야'는 서로 다른 장소이고 히브리어 이름도 다르기 때문에 11절은 '신(Sin) 광야'로 하고, 36절은 '씬 광야'(『공역』), '친 광야'(『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 2009), '찐(Zin) 광야'(『청소년을 위한 쉬운성경』, 2005)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역개정』은 『개역한글판』의 잘못을 개정한다고 했음에도 『개역한글판』의 미숙한 점을 그냥 답습하고 있는 셈이다.

2) 창세기 2:7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네페쉬 하야(נפש חיה)'가 되었다는 어휘를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은 '생령'[3]으로 번역함으로 해서 동물도 영적 존재로 오해하게 된다. 다른 역본들은 '생명체'(『표준』, 『바른』, 『쉬운』) 또는 'a living being'(TANAKH, NRSV, NIV)으로 번역한다. 하지만 『개역개정』이나 『표준새번역』 모두 공인역인데, 어느 번역에서는 '생령', 다른 번역에서는 '생명체'라고 하니 혼동된

3) 『개역개정』은 "생물"로 주를 달고 있다.

다는 것이다.

3) 열왕기하 23:29도 같은 경우이다.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판』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앗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על)' 올라간다고 하고, 다른 역본들(『공역』, 『표준』, 『바른』, NIV, NRSV)은 앗수르 왕을 '도우려(to help)' 올라간다고 하니 독자들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문의 역사적 맥락과 '알'의 문법적 기능을 고려하면 후자의 번역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역개정판』도 현대인을 위한 좋은 번역판인데도 불구하고 그 역본에 대한 많은 이의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4)]

2.5.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2009)

마지막으로 최근의 번역판은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2009)이다. 이 성경은 대한성서공회가 번역 출판한 것이 아니라 장로교 합동 계열의 보수신앙 노선을 견지하는 교단들이 모인 한국성경공회에서 선발된 복음주의 신학대학 교수 40여 명의 노력으로 번역된 성경이다. 지금까지 모든 번역들의 단점을 극복하고 최상의 역본을 출판했다는 것이다. 성경의 영감과 무오의 교리를 근본으로 한 바른 신학과 신앙에 기초하여 번역했다고 한다. 바른성경은 번역의 대상을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정했다: 현대 한국 사람으로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른말과 표준말로 문어체와 구어체를 혼용하여 문장의 유연성을 증대시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였다고 한다. 이 역본은 『개역한글판』을 근간으로 하여 직역에 충실하면서 의역도 가미한 흔적이 보인다. 따라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도 '야훼'가 아니고 『개역한글판』처럼 '여호와'다. 『개역한글판』을 수정도 한다. 1) 창세기 12:2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베라카)는 개역의 번역을 '복이 될 것이다'라고 바꾸었다. 이미 『개역개정』(1998)에서 '복이 될지라'로 수정한 것을 참조하지 못한 것 같다. 2) 흔히 '기업(נחלה)'으로 쓰인 용어는 '유업(遺業)'으로 바꾸었다. 3) 헤세드는 '인자'보다 '인애'가 낫다는 것이다. 『바른성경』은 바른 신학에 기초하여 번역한다고 한다. 바른 신학은 성경에서 온 것인데 바른 신학에 기초하여 번역한다는 것은 자칫 인간의 도그마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한다는 모순을 갖게 될 수도 있다.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판』의 잘못된 점을 보완하여 올바른 이해를 추구함에 초점을 둔 것

4) 배희숙, "전치사 '알(על)' 구문의 번역에 대한 고찰 -왕하 23:29와 대하 17:1하의 경우", 「성경원문연구」 24 (2009), 54-71. L. Koehler and W. Baumgartner, *The Hebrew &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Vol. 2 (Leiden: E. J. Brill, 1995), 826; 강원주, 『개역개정판에 대해 말한다』 (포항: 도서출판 소망, 2008), 8-199.

이 바로『바른성경』이라고 한다.

『개역한글판』을 중심해서 보완한 것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지만, 이미『개역한글판』의 잘못된 점을 다른 번역본들이 교정했으면 이를 참조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1) 여호수아 22:11에서『개역한글판』이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갓 자손(**בני גד**)'을 번역하지 못했다. 하지만『개역개정』,『공동번역』과『표준새번역』은 갓 자손을 반영하고 있다. 이미 바른성경이 출판되기 이전에 교정이 완료된 것을 바른성경의 번역진들이 미처 참조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시 오역으로 거론하고 수정하는 것은 아쉬운 감이 있다. 2) 그 외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대신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바꾼 것이 이 바른 신학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본문의 어순보다는 기능적으로 수식 기능이기 때문에 큰 잘못은 없다고 본다.

『바른성경』의 첫째 지향 목표는 바른 신학에 초점을 둔다고 하지만 바른 신학에 근거한 번역과 성경 번역에 의한 바른 신학 정립을 생각할 때 신학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성경은 불변하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학 정립이 우선적이고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예를 들면 십계명의 1계명을 번역할 때 **על פני**의 문자적 번역보다는 성경 전체의 흐름에 따른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는 전통적인『개역한글판』의 번역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바른성경의 번역 원칙은 의미론적 일치보다는 형식일치에 맞추고 있다. 이는 의미론적 일치의 번역은 전도용이나 어린이용에는 맞지만, 교회 예배용이나 성경 연구용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형식일치를 택했다고 한다.

우선『개역한글판』을 제외한 네 개 역본들의 공통점은 국명이나 지명에 대한 번역에 현대화된 용어를 채택한 점이다. 예를 들어『개역한글판』성경에는 애굽인데 최근 번역본들은 '애굽'이라는 국명 대신에 '이집트'로 옮기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역본들의 번역 결과를 감안하면서 차세대 번역자들에게 유념할 사항 세 가지만 열거하려고 한다: 1) 본문에 대한 철저한 검토, 2) 용어의 통일성, 3) 동식물 이름들의 번역이다. 어떤 역본도 완전한 번역이 될 수 없으므로 번역은 반역(半譯)이라고도 한다. 얼마나 더 원본에 가깝게, 즉 저자의 의도에 가깝게 그리고 당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 번역인가가 번역의 지상 과제다. 따라서 번역자들이 유념할 사항을 열거해 보자.

3. 차세대 번역자들을 위한 새로운 제안들

3.1. 본문에 대한 철저한 검토

번역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이해가 우선이다.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정확한 번역은 어렵다. 문자역이든 의미역이든 간에 본문의 철저한 파악 없이는 번역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번역은 문자역에 중점을 두지만 문자역으로 수용언어의 번역이 안 될 때는 내용 동등성의 의미역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한 방법만이 절대 번역의 방법은 아니다. 본문의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예를 든다면 출애굽기 1:16에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할 때 어디를 잘 살펴서 남자 아이면 죽이고 아니면 살리라는 문맥에서 아직까지 우리말 공인역본들에서는 본문의 검토가 철저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이 구절에 대한 본문 검토가 있었으니 다행스럽기는 하나 아직 공인역에는 미치지 못한 상태이다.[5] 이 문제에 대해 각 역본들의 번역을 살펴본다.

『개역한글판』(1956)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공동번역』(1977)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 줄 때, **사타구니를 보고** 아들이거든 죽여 버리고,
『표준새번역』(1993)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개역개정』(1998)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쉬운성경』(2005)
너희는 히브리 여자가 해산하는 것을 도와 줄 때 **출산용 돌 걸상들을 잘 살펴서** 만약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고,
『바른성경』(2009)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에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위에서 보는 대로 『개역한글판』의 흐름을 따라, 『바른성경』은 '살펴서'로,

5) 장석정, "출애굽기 1:16의 **אבנים** 번역 재고", 「성경원문연구」 31 (2012), 7-23.

『표준새번역』은 '잘 살펴서'로 번역하여, '살핀다'는 '우레이텐(וראיתן)'의 뜻은 잘 표현했지만, 동사 '라아'(본다)의 목적어가 잘 번역되지 못했다. 무엇을 살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어가 번역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그 목적어를 '그 자리'로, 『공동번역』은 '사타구니'로 번역한 것이다. 그렇다면 히브어 본문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단어는 어떤 것일까? 목적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본문은 '알 하오브나임(על האבנים)'이다. '알 하오브나임'은 '그 돌들'이란 뜻이다. 『개역개정』의 '그 자리'는 구체성이 없고, 『공동번역』의 '사타구니'는 임의적인 번역이 된 셈이다. 최근역인 『바른성경』도 목적어를 찾지 못했다. '하오브나임'에 대한 몇몇 영어역들은 '출산 의자'(birthstool, delivery stool), '출산용 돌'(birth stones) 등으로 옮긴다, 장석정은 '분만대'로 번역하는 것을 제안한다.[6] 하지만 '분만대'로만 옮기면 걸상 모양의 돌로 된 분만대임을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쉬운 성경』(2005년)은 돌로 된 걸상 모양의 분만대를 '출산용 돌 걸상'으로 옮겼다. 따라서 문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한 번역이라도 완역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번역자는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언어를 이해하고 번역하는 데 최선을 다할 뿐이다.

3.2. 같은 문맥에서 같은 용어의 통일성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정확하게 구별되는 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독자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히브리 본문에 나타난 용어들 즉 '토라(תורה)', '호크(חוק)', '미쉬파트(משפט)' 등에 대한 우리말 공인역들에 나타난 예를 도표를 통해 살펴본다.[7]

다양한 용어들로 번역된 용어들														
תורה	법	법규	법도	율법	규례	규칙	규정	의식	예식	지시	가르침	훈계		
חוק				율례	규례	규범	규정	풍속	소득	몫				
משפט	법	법규	법도	율례	규례	규격	규정	관습			관례	양식	정의	공정

어떤 용어가 문맥에 따라 여러 의미로 번역될 수 있고 번역되어야 한다. 하

6) Ibid., 17ff.

7) 다음 통계는 1장에서 제시한 공인역본들 중에 『개역한글판』(1956)을 제외한 네 개의 역본과 『청소년을 위한 쉬운 성경』(2005)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대상에서 『개역한글판』을 제외한 것은 개역의 용어들은 거의 『개역개정』에 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만 같은 문맥에서는 가능한 한 통일성을 이루어야 다른 용어와의 혼선을 피할 수 있다. 그래야 정확한 해석과 이해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구약 오경에서 많이 언급되는 어휘 가운데 '토라(תורה)'가 56번(구약 전체 220번) 쓰이는데, 네 종류의 우리말 공인역에서 열두 종류의 다른 용어로 번역된다: '법, 법규, 법도, 율법, 규례, 규칙, 규정, 의식, 예식, 훈계, 지시, 가르침' 등이다. 영어역에서는 네 종류의 용어로 번역되는데 KJV는 전부 'law'로, NASB는 'law' 외에 두 번은 'Instruction'(출 16:4, 28)으로, NRSV는 'law' 외에 4번은 'Instruction'(출 16:4, 28; 18:16, 20)으로, 한번은 'teaching'(출 13:9)으로, 13번은 'ritual'로 번역된다. 레위기의 경우 11:46과 12:7만은 'law'로 번역되고, 나머지 13번은 'ritual'로 번역된 셈이다.

그런데 '호크(חוק)' 역시 오경에서 46번(구약 전체 129번) 나타나는데, 일곱 종류의 용어로 즉 '규례, 규정, 율례, 규범, 풍속, 소득, 몫' 등으로 번역된다. '미쉬파트(משפט)'도 오경에 77번(구약 전체 424번) 나타나는데, 열두 종류의 유사한 용어로 번역된다: '규례, 율례, 법, 법규, 법도, 규격, 규정. 관례, 관습, 양식, 정의, 공정' 등으로 번역된다. 여기서 혼란을 주는 것은 세 개의 히브리어 용어는 각기 다른데 우리말 용어는 같은 용어로 번역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되는 용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본문 이해에 혼란을 준다. 각기 다른 세 용어에 대해 공통되는 우리말 수용 언어로는 '법, 법도, 법규, 규례, 규정' 등이다. 이 수용 용어들은 어떤 의미에서 서로 통하고 어떤 면에서 다른 점들이 있는지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우리말 사전을 중심으로 수용된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8] 우선 법에 대한 종교적 용어와 일반 사회적 용어로 구별할 수 있다.

ㄱ) 법에 대한 일반 사회적 용어

⑴ 법(法) - 법률, 법령, 조례 등 구속력을 갖는 온갖 규칙과 규범. 법과 관련된 일반적 총칭을 말한다.

⑵ 법규(法規) - 법률의 규정, 규칙, 규범 즉 일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이나 규정을 말한다.

⑶ 법도(法度) - 법률과 제도, 생활상의 예법과 제도를 말한다. 법의 윤리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용어다.

⑷ 법률(法律) -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강제적인 규범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을 지칭한다.

⑸ 규례(規例) -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관례(慣例)을 말한다. 관습법을 말한

8) 『민중 엣센스 국어사전』, 이희승 감수, 제 6판 전면 개정판(서울: 민중서림 편집국편, 2006).

다.

⑹ 관례(慣例) - 이전부터 해 내려와 습관처럼 되어버린 것을 지칭한다. 국제관례에 따르다.

⑺ 규칙(規則) - 여러 사람이 지키도록 정한 법칙을 말한다. 규칙을 따르라.

⑻ 규정(規定) -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을 말함. 법령의 조항으로 정해 놓은 것을 말함, 동법 2조 규정에 의하면 된다.

⑼ 법례(法例) - 법규의 적용 관계를 정한 법률이나 규정이다.

⑽ 규범(規範) -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본보기를 뜻한다.

ㄴ) 법에 대한 종교적 용어

⑴ 율법 – 신이 인간에게 지키도록 내린 규범

⑵ 율례 – 형률의 적용에 관한 법례, 형벌법의 총칭 또는 법규

위에서 보는 대로 법적 용어에 대해 일반 사회적 용어로는 법, 법률, 법규, 법례, 관례, 규정, 규칙 등이고, 종교적 용어로는 율법, 율례 등으로 나타난다. 위 도표에서 보는 대로 '토라(תורה)'가 사용된 용어 가운데 어떤 용어가 더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용 용어의 의미 범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히브리어 세 어휘 중 어떤 용어를 규례나 규정, 법도나 법규로 번역했는지 혼선이 생긴다. 정확히 구별되는 수용언어는 없을까? '호크(חוק)' 역시 여러 수용 용어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어떤 용어가 더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쉬파트(מִשְׁפָּט)'의 경우 『개역한글판』에서는 '공의'(신 32:4; 33:21)로 번역하나 『개역개정판』에서는 '정의'나 '법도'로 번역하고, 대신 '체데크(צדק)'를 '공의'로 번역하기 때문에 혼선이 가중된다. 『개역한글판』 출애굽기 15:25에서 '호크'는 '법도', 18:16에서는 '율례'로 되고, '미쉬파트' 역시 출애굽기 15:25에서는 '율례'로 번역되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어렵다. 이런 현상은 『개역개정판』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된다. 출애굽기 15:25에서 호크는 법도, 18:16에서는 율례로 번역된다. '미쉬파트' 역시 출애굽기 15:25에서는 율례로 나타난다. 같은 현상이 『개역한글판』의 레위기에도 나타는데, 25:18에 '후코티(חקותי)'와 '미쉬파티(משפטי)'는 법도와 규례이고, 26:43에 '미쉬파티(משפטי)'와 '후코티(חקותי)'는 법도와 규례로 되어 있다. '후코트'가 앞에서는 '법도'이고 뒷 문맥에서는 '규례'로 되어 있으니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개역한글판』 민수기 9:3에서도 '호크'는 '율례'로, '미쉬파트'는 '규례'로 번역된다. 『개역한글판』 민수기는 '호크'를 '규례' 대신에 전부 '율례'로 번역한다. 『공동번역』은 '호크(חקה)'를 일관되게 '규정'으로 옮긴다. 나

머지 대부분의 번역들은 '호크'를 '규례'로, '미쉬파트'를 '법' 또는 '법규'로 번역한다. 신명기에서는 거의 모든 번역이 '호크'는 '규례'로, '미쉬파트'는 '법도'로 번역된다. 위에서 언급한 이런 혼선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정확히 구별되고 통일성 있는 용어로 번역되었으면 한다. 세 용어를 구별할 수 있는 점들이 있는지 검토하여 보자.

① 토라(תורה)

우리말 공인역들의 오경에서 '토라'는 대부분 '율법'(출 13:9; 24:12; 레 26:46; 신 1:5; 4:8, 44; 17:18, 19; 27:3, 8, 26; 28:58; 31:9, 11, 12, 24; 32:46; 33:4, 10 등)으로 번역된다. '규례'(레 6:9[히 6:2], 14[히 7], 25[히 18]; 13:59; 14:57 등), '법'(출 12:49; 민 19:2; 말 4:4[히 3:22] 등), '법도'(창 26:5; 출 18:16, 20; 민 15:16 등)으로도 번역된다. '토라'는 위의 여러 히브리 용어들을 다 포함한 총괄적인 용어다. 말라기 4:4(MT 3:22)에 모세가 호렙 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תורה)'라고 했고, 그 '토라'의 내용을 '율례'와 '법도(חקים ומשפטים)'라고 옮긴다: …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토라),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신명기 17:9-11에서도 '토라'는 포괄적 의미를 가진 용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법률(התורה)의 뜻대로 그들이 네(모세)게 고하는 판결(המשפט)대로 행할 것이요. 민수기 19:2의 '토라의 호크(חקת התורה)'에서 '토라'는 상위의 포괄적 개념의 용어다. 고로 '토라'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교적인 용어로 인식되는 '율법'이란 번역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② 호크(חוק)

통상 '호크'는 여러 역본에서 '규례'로 많이 나타난다. 규례란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관습과 같은 관례(慣例)를 말한다. 『개역한글판』에서 חוק는 어떤 원칙을 의미한다. '땅의 규례'(렘 33:25 חקות ארץ) 즉 '땅의 원칙'이다. '생명의 율례'(겔 33:15 בחקות החיים)는 '생명의 법칙'을 말한다. '하늘의 법도(חקות שמים)'는 '하늘의 원칙'(욥 38:33)을 뜻한다. 그 밖에도 '몫, 분깃, 소득, 응식'(레 7:34; 10:15; 민 18:8, 11, 19), '법도'(출 15:25; 레 25:18; 신 11:1; 왕상 3:3 - בחקות דוד)로도 번역된다. 따라서 '호크'는 구체적인 세부 규정에서부터 대 원칙적인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개역한글판』의 출애굽기 12:3-14에는 유월절의 '규례'로, 에스겔 5:6에는 '율례(חקותי)'로 번역된다. 그리고 민수기 27:11과 35:29에서 『개역한글판』에는 '호크'가 '율례'로 번역되고, 『개역개정판』에는 '규례'로 번역되었다. 민수기에서는 대부분의 '호크'가 '율례'로

번역된다(9:3, 12, 14; 10:8; 15:15; 18:23; 19:2, 10, 21). 나머지 오경 전체에서는 '호크'가 대체로 '규례'로 번역되므로 민수기에서도 '율례' 대신에 '규례'로 통일했으면 혼란이 없었을 것이다. '율례'는 형률의 적용에 관한 범례이므로 오경에서는 3회만이 타당하다(출 21:31; 레 24:23; 35:24).

③ 미쉬파트(**משׁפט**)

미쉬파트는 우리말 공인역들에서 대부분 '법도'(레 18:4, 5, 26; 19:37; 20:22; 26:15, 43, 46; 신 4:1, 5, 8, 14, 45; 5:1, 31; 6:1, 20; 7:11, 12; 8:11; 26:17)로 번역된다. '공의'(창 18:25; 신 32:4), '권리'(신 21:17), '식양(式樣)', '양식'(출 26:30), '몫, 응식'(신 18:3), '정의'(개역개정 - 창 18:19, 25), '규례'(레 5:10; 9:16; 25:18; 민 9:3, 14; 15:16; 35:24; 36:13), '율례'(출 15:25; 21:1, 31; 24:3), '법'(레 24:22), '재판'(레 19:15), '판결'(민 27:11; 신 17:9) 등으로도 번역된다. 앞에서 본 대로『개역한글판』의 민수기 27:11에서는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לחקת משׁפט**)가 되게 할찌니라"로 번역하였다. 민수기 35:29에서도 같은 용어가 쓰인다.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לחקת משׁפט**)". 이런 용례로 보아 '미쉬파트'는 '호크'보다 넓은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상속 때에 기억할 것은 '미쉬파트'의 규정, 즉 재판 규정이다. 많은 한글 역본에서 '호크'와 '미쉬파트'는 통상 '규례'와 '법도'로 번역됨을 알 수 있다. 고로 '미쉬파트'는 예외적인 문맥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법도'로 번역됨이 적당하다고 보인다. '호크'와 '미쉬파트'가 다른 단어와 연계되었을 때는 어떻게 번역되었는지『개역한글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개의 단어 연계

חקי ומשׁפט 신 4:5, 14 - 규례와 법도
신 5:1 - 규례와 법도
말 4:4(3:22) - 율례와 법도
대상 22:13 - 율례와 규례

3개의 단어 연계

עדת חקי ומשׁפט 신 4:45 - 증거, 규례, 법도
מצותיו עדותיו חקיו 왕하 23:3 - 계명, 법도, 율례
תורה חקה עדות 렘 44:23 - 법, 율례, 증거
מצוה חקי משׁפט 느 1:7 - 계명, 율례, 규례

מצוה חקי ומשׁפט 신 7:11 - 명령, 규례, 법도
חקי מצות משׁפט 신 26:17 - 규례, 명령, 법도
חקי משׁפט תורה 레 26:46 - 규례, 법도, 율법

4개의 단어 연계
משׁמרתי מצותי חקותי ותורתי 창 26:5 -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החקים המשׁפטים התורה המצוה 왕하 17:37 - 율례, 법도, 율법, 계명
משׁמרתו חקתיו משׁפטיו מצותיו 신 11:1 - 직임, 법도, 규례, 명령

위의 번역들을 참고할 때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구별된 수용언어를 찾는 일은 중요하다. 예외적인 문맥은 제외하더라도 '토라'는 '율법', '호크'는 '규례'나 '규정', '미쉬파트'는 '법규'나 '법도'가 일반적 경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문맥의 이런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역자들이 통일성을 기하기보다는 소수의 역자들이 번역을 전담하면 이런 혼선을 피할 것으로 본다. 수십 명의 번역자가 성경을 동시에 번역하면 시간을 단축하는 장점도 있으나, 통일성이 결여되는 약점이 생기므로 성서공회에서는 차세대를 위해 전문적인 번역자들을 훈련시켜 번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면 통일성을 갖춘 좋은 번역이 나올 것이다.

3.3. 동식물 이름의 번역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동식물의 정확한 호칭에 대한 번역이다. 모든 한글 역본에서 나라 이름이나 지명은 현재 우리가 부르는 이름으로 바꾸어 번역했다. '애굽'이란 이름 대신에 '이집트', '바사'란 이름 대신에 '이란'으로 바꾸었듯이 일반 동식물 이름도 가능한 본문과 일치하며 학명에 가까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오역부터 살펴보자.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우슬초**'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조브(אזוב)**'는 우리가 말하는 '우슬초'가 아니고 정결의 표상으로 쓰이는 바 학명은 Origanum Majorana이고 영어 이름은 '마죠람(marjoram)'이다.[9] 이 식물에 히포크라테스가 'hyssop'란 이름을 붙인 것으로 전해지며, 중세기에 성지 순례를 하고 간 신부가 성경의 '에조브'를 'hyssop'으로 알고 번역함에 따라 서양 번역판은 '에조브'를

9) 최영전 편, 『성서의 식물』(서울: 아카데미서적, 1996), 165ff. 박권우, 『허브 및 아로마테라피』(경기 일산: 선진문화사, 2003), 96ff.

‘hyssop’으로 번역함으로써 성경의 ‘에조브 풀’이 ‘우슬초(hyssop)’가 된 것이다. 식물학적인 ‘hyssop’은 ‘에조브’와는 다른 식물인 ‘hysspus officialis’로 약용과 향신료로 쓰이는 다년초이다. 이 식물은 이스라엘이나 시내 산 지역에는 자라지 않는 식물이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슬초’는 성경의 ‘에조브(Majorana Syriaca)’가 아니라 약용이나 향신료로 쓰이는 다년생 ‘히쏘프’이다. 그래서 성경의 ‘에조브’에 해당하는 이름은 ‘히쏘프’로 오인되는 ‘우슬초’보다는 ‘에조브 풀’로 음역된 어휘가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데 출애굽기 16:31에 광야에 내린 ‘만나’를 묘사하는 표현에서 『개역한글판』과 『개역개정판』은 ‘만나’를 ‘**깟씨**’ 같은 희고 꿀 섞은 과자 같더라고 번역한 ‘깟씨’는 본문의 ‘**갓(גַּד)**’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음역한 것이다. ‘깟’이라는 식물 이름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coriander’이다.[10] 이는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사찰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식물인 ‘고수/고수풀’이다. 그러므로 『공동번역』, 『새번역』, 『바른성경』처럼 ‘깟씨’보다는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고수씨’로 혹은 ‘고수풀 씨’(『쉬운』)로 번역하면 더욱 이해하기 쉽다. 신명기 10:3에 나오는 ‘**싯딤(שִׁטִּים)**’을 ‘싯딤나무’(『개역한글』), ‘조각목’(『개역개정』)으로 번역하지만 ‘싯딤’은 우리나라에도 있는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나무이므로 ‘아카시아 나무’(『공동번역』, 『표준새번역』, 『바른성경』, 『쉬운성경』)로 번역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 음역된 『개역한글판』의 ‘싯딤나무’나 ‘조각목’이란 나무는 우리말 국어사전에는 ‘조각자나무(皁角刺--)’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어 성경의 ‘조협목(皁莢木)’과 동일시되지만 한자어 ‘조각(皁角)’이나 ‘조협(皁莢)’은 ‘아카시아 나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쥐엄나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11]

또한 창세기 30:14-16에 ‘**합환채**(合歡菜)’로 번역된 어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합환(남여가 합금하여 즐기다는 뜻)의 채소를 의미하는 채(菜)를 더해 합환의 채소란 뜻으로 쓰인 보통명사로서 정확한 명칭이라 할 수 없다. 『개역한글』, 『개역개정』과 『바른성경』은 이 용어를 사용하지만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은 ‘자귀나무’로 번역한다. 그러나 이 식물은 나무가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야생초이므로 ‘자귀나무’의 중국 이름인 ‘합환수(合歡樹)’를 따라 성경의 ‘두다임’을 ‘자귀나무’로 한 것 역시 오역이라고 한다.[12] 영어성경은 거의 다 ‘mandrake(힌독말풀)’ 혹은 ‘mandrake plant’로 번역한다. ‘맨드레이

10) 최영전 편, 『성서의 식물』, 115-117.

11)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조각자나무’(皁角刺--)로 올라 있다. 중국어 성경들은 ‘조협목’(皁莢木)으로 번역하였다. 한자어 ‘조각’(皁角)과 ‘조협’(皁莢)은 모두 ‘쥐엄나무’를 가리키는 말로, 같은 나무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동아한한대사전』(서울: 두산동아, 2000), 1202.

12) 최영전 편, 『성서의 식물』, 233.

크(mandrake)'가 어떤 풀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흰독말풀'로 불린다. 어차피 정확한 용어로 번역하기 힘들 경우에는 음역을 하여 히브리어 발음대로 '두다임(דודאי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히브리어 직역성경』은 '두다임', 『쉬운성경』은 '두다풀'로 번역한다.[13]

따라서 동식물 이름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청된다. 동식물학을 전공한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되는 동식물 이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다음 세대에는 이런 혼돈과 착오가 없기를 기대한다.

4. 나가는 말

우리는 1장에서 5권의 공인역 우리말 성경 번역들의 특징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점검하여 보았다. 우리 성서공회는 신구약 성경전서가 완역된 1911년 이후 1세기를 넘는 경륜 속에 5개의 공인역을 출판하여 성도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준 위대한 역사를 기록했다. 한 세기 사이에 5번에 걸쳐 성경이 수정이나 개역되었고, 또는 새로운 번역이 간행되었다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심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1세기 동안 성경 번역의 노하우를 살려 기존 번역의 장점을 백분 발휘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21세기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직역에 기초한 『개역한글판』의 번역 방향과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보다 훌륭한 번역을 다음 세대에 내 놓아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역에 기초한 『공동번역 성서』의 번역 방향과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보다 훌륭한 번역을 다음 세대에 내 놓았으면 한다. 아니면 『표준새번역』처럼 위의 두 성경 번역의 방향과 기술을 종합하여 새로운 세대를 위한 특색 있는 성경을 출간하는 작업도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지 번역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는 번역의 대본인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문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의 번역은 저자의 의도를 헤아릴 수 없고 역자의 주관에 사로잡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번역은 일종의 해석인데 개인의 지나친 주관적 해석은 위험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1:16에 '출산용 돌 걸상'이란 뜻의 '하오브나임'이 아직 공인역에

13) 『히브리어 직역 성경: 베레쉬트(창세기) - 드바림(신명기)』, 허성갑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3).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본문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없었다는 증거가 된다. 둘째는 번역에서 한 어휘가 여러 의미로 번역될 수는 있지만, 같은 문맥에서 같은 용어는 같은 수용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같은 문맥에서 같은 용어가 같은 말로 번역되면 이해가 빠른데, 다른 용어로 번역되면 독자에게 많은 혼란을 주기 때문이다. 통상 '토라'는 '율법'으로 번역되지만 '법도'로 번역될 경우, 『개역개정』에 있어서 '토라'도 '법도'(출 18:16, 20)로, '호크'도 '법도'(레 25:18; 신 11:1)로, '미쉬파트'도 '법도'(레 18:4-5)로 번역되었으니 독자는 본문의 용어가 각기 다른 용어라는 것을 알 때에는 혼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역시 세 어휘가 '규례'와 '규정'으로도 번역되어 혼선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또한 '호크'가 '율례'(민 9:3, 12, 14; 겔 5:6)로 번역되지만 '미쉬파트' 역시 '율례'(출 15:25; 24:3)로 번역되니까 의미 파악에 혼선을 준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동식물에 대한 우리말 번역의 문제이다. 성경 당시에는 있던 동식물이 지금에는 없는 것도 있으므로 알맞은 대응어를 찾기란 쉽지 않다. 출애굽기 16:31의 '만나는 깟씨 같다'는 말에서, '**갓**(**גד**)'이라는 이름을 음역한 '깟'이라는 식물은 '고수풀'이란 우리말 대응어가 있어 다행이지만, 출애굽기 12:22에 정결예식의 상징으로 쓰이는 '에조브'에 대한 우리말 대응어가 없으므로 '에조브'를 서양 번역들이 'hyssop'으로 오역한 것을 우리 번역은 '우슬초'로 번역한 것이다. 따라서 '에조브'를 'hyssop'으로 오역한 것을 우리 번역이 '우슬초'로 부르기보다는 히브리어에서 음역된 '에조브'가 더 어울린다. 이런 제안들을 감안해서 다음 세대 번역자들은 보다 좋은 번역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투고 일자: 2012. 10. 2. 심사 일자: 2012. 11. 9. 게재 확정 일자: 2012. 12. 21.)